

## Joseph Conrad 소설의 실존주의적 경향

김 수 종\*

### 목 차

- I. 서 론
- II. 고 립
- III. 자 유
- IV. 책 임
- V. 반 향
- VI. 결 론

### I. 서 론

1950년대 후반 Joseph Conrad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화되면서 그의 소설을 실존주의의 맥락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Morton Dauwen Zabel은 Conrad 소설의 소외와 정신적 인식의 드라마가 Thomas Mann, Andre Gide, Franz Kafka 등의 소설에 나타나는 특징임을 지적하고<sup>1)</sup>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One of its latest appearances is in the novels of the French existentialists, who have given tragedy a new demension in the irrationality or absurdity of the universe<sup>2)</sup>

Albert J. Guerard는 Conrad의 인생관을 실존주의의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그의 단편 "Amy Foster"를 Kafka의 「아메리카」와 「심판」, 그리고 Camus의 「이방인」 등의 작품과 연관시켜 논하고 있는가 하면<sup>3)</sup> "The Return"을 가르켜 "Gidean affirmation of life"의 구현이라고 말

\* 사범대학 영어교육과(Dept.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1) Morton Dauwen Zabel, "Change and Recognition", *The Art of Joseph Conrad: A Critical Symposium*, ed. R. W. Stallman (Athens, Ohio: Ohio Univ. Press, 1982), p. 28.

2) *Ibid.*

3) Albert J. Guerard, *Conrad the Novelist*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69), p. 50.

함으로써“ Conrad 작품이 실존주의 작품들과 유사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Fredric R. Karl도 *Lord Jim*의 주인공을 Graham Greene의 *The Power and the Glory*의 주인공과 비교하고 있으며,<sup>4)</sup> 결론적으로 Conrad를 불란서 실존주의 작가들의 계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가 하면 Murry Krieger는 Conrad 소설을 Kierkegaard의 기독교적 실존주의의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시작된 Conrad 소설의 실존주의 연구는 단속적이거나 꾸준히 진행되어왔으며 여러 연구자들은 실존주의의 이론이 다양한 것처럼 저마다의 방법과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견해를 피력해왔다. 사실 실존주의 자체가 인간의 개별성과 경험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철학인 만큼 실존주의자들은 각각 다른 관점을 지니게 마련이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가들과 거의 같은 수효의 실존주의가 있다고 할 만큼 실존주의에는 여러 이론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실존주의와 연관된 Conrad 연구에서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해주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존주의가 인간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논하고 인간실존의 기본적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어디까지나 공통점을 지닌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개인의 자주성과 개인주의의 힘, 이성과 합리주의에 대한 반발, 모든 전통적 가치와 철학의 정당성에 대한 부정, 의지와 자유의 행사, 무와 삶의 부조리를 독자적으로 경험하는 등, 이 모든 것은 실존주의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들과 연관시켜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는 Conrad의 실존주의적 양상으로서 Otto Bohlmann이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한 예시라고 할 수 있다.

... Conrad's approach to the tragic tension between limited man and the indifferent universe he inhabits; to the supremacy of emotional life over rationality, focusing on man in the whole range of his existing as a subjective interpreter of the world; to the role of feelings such as alienation, despair, nausea and anxiety; to man's quest for authentic selfhood (with its attendant questions of freedom, decision, action and responsibility); an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the qualities they demand.<sup>5)</sup>

이러한 여러가지 양상들 중에는 20세기 현대 소설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린 개념도 있으므로 오늘날의 안목에서는 진부한 느낌마저 줄 수 있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19세기의 주류가 된 개념은 아니며 당시는 어디까지나 신선한 것이었다. Conrad 소설이 2차대전 이후에 비로서 부활하게 된 것도 한편으로는 이때에 이르러서야 소설 전반에 대한 비평작업이 본격화된 탓도 있겠으나 그 보다도 전쟁의 와중에 불안과 고통과 절망을 경험한 새로운 세대가 그의 작품에 담겨진 현대적 의미를 발견하고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

4) *Ibid.*, p. 97.

5) Fredrick R. Karl, *A Reader's Guide to the Contemporary English Novel* (New York : Noonday Press, 1972), p. 98.

6) Otto Bohlmann, *Conrad's Existentialism*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91), pp. XV-XVI.

한 사실이 그의 작품으로 하여금 20세기의 대표적 현실이론의 하나인 실존주의와 접합시켜 고찰하게 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Conrad의 작품에 나타난 실존주의적 양상을 통해 그가 탐구하는 인간의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실존적 삶의 의미와 더불어 Conrad 문학의 현대성을 찾고자 한다. 연구를 진행하는 순서로서는 인간조건의 부조리 측면에서 고립과 자유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모색한다는 긍정적 차원에서 책임과 반항의 문제를 알아보려고 한다.

## II. 고립

Conrad가 묘사하거나 창출하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어떤 내적 요소 또는 외적 요소에 의해 고립되거나 소외된 인물들이다. 즉 그들은 어떤 이기주의적 욕망이나 환상과 같은 인간 내면의 어둠의 요소가 표출되어 도덕적으로 소외되기도 하고 가정이나 문명에서 격리되어 고립상태에 놓여지기도 한다. 고립된 상황은 필연적으로 고뇌를 수반하며 대부분 극한 상황을 초래하고 곤경에 빠지게 한다. Conrad 소설에서는 인간은 신이 없는 우주, 즉 목적도 의미도 없는 부조리한 세계에 유기된 고독한 존재이며,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살아갈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고립 또는 소외의 문제는 Conrad의 중심이 되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실존주의의 가장 기본적 주제이기도 하다.

Conrad는 어린 시절부터 고독과 고난의 삶을 살았다. 그는 네 살 때 조국 폴란드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러시아로 유배된 부친을 따라 어머니와 함께 혹한의 유배지 생활을 했다. 그 때의 참혹한 생활 탓으로 어머니는 병이 들었고 그는 일곱 살 때 어머니와 사별했다. 그로부터 4년 후에는 부친과도 사별했으며 그가 처음 의식한 것은 뼈저린 고독감이었다. 이처럼 그는 유년시절에 유배와 고독과 죽음으로 얼룩진 생활을 경험했다. 이때부터 그는 자유의 소중함을 절감했고 또한 비관적 인생관이 싹튼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잠시 숙부의 보호하에 있었으나 17세 때 선원이 되었다. 이것이 그가 조국을 떠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때부터 20년간의 해상생활이라는 고립의 체험세계가 이어진다. 그의 생애에 큰 전기가 된 것은 Congo 여행이었다. 그는 이 여행에서 고독감과 병마에 시달렸으며 죽을 고비를 가까스로 모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여행은 그가 "Before the Congo, I was just a mere animal"<sup>7)</sup>이라고 술회하고 있을 만큼 인간의 진실에 대해 많은 깨우침을 주었던 귀중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큰 고독감을 안겨준 것은 선원에서 변신한 그의 작가생활이었다. 영국인으로서의 정착된 생활을 하기에는 그의 남다른 용모나 언어구사가 너무나 그를 소원하게 하였으며, 평생의 빈곤은 언제나 그를 책상머리에 고독하게 묶어 놓았다. 고립과 고난의 생애를 살았던 Conrad의 체험세계는 거의 모든 그의 작품에 반영되어 있으며, 말하자면 그가 탐구하는 인간의 진실은 개인이 경험한 상황에 대한 내적

7) Gerald Jean-Aubry, *The Sea Dreamer: A Definitive Biography of Joseph Conrad*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57), p. 175.

반응을 통해 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onrad의 소설에서는 고립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육체적 고립은 대부분의 경우 도덕적 고립의 상징이 되며 결과적으로 불행해지거나 비극적 종말을 맺고 있다. 고립의 유형도 다양하며 가족이 없어서 고독한 인물들을 비롯하여 과거의 행위로 인해 소외되는 인물들, 그리고 고립된 환경이나 상황에 놓여지는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고립을 선택하는 인물들도 있다. 고립은 그것이 부과되었건 선택되었건 간에 실존의 필수적 조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Conrad의 배경도 거의 대부분이 바다, 무인도, 동양의 섬들, 아프리카 등으로 주인공들에게는 고립된 환경이다. "The Secret Sharer", *The Shadow Line*, *The Nigger of the Narcissus* 등 이른바 해양소설은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Heart of Darkness", "An Outpost of Progress" 등은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Lord Jim*의 뒷부분 "The Lagoon", "Karain" 등은 동양의 섬이 배경이 되고 있다. Almayer와 Willems는 마치 Jim이 Patusan에 갇혀져 있는 것처럼, 열대의 정글 속을 흐르는 외로운 Pantai 강의 상류에 고립되어 있다. Kayerts, Carlier, Kurtz 등은 아프리카의 한복판에 고립되어 있으며 Decoud와 Heyst는 "The Lagoon"의 Arsat가 석호에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외로운 섬 속에 격리되어 있다. 이처럼 고립된 배경은 단순히 배경으로서의 역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글이나 외로운 섬은 고독의 상징이 되며 인간의 모든 세련미를 박탈하고 적나라한 원천적 모습으로 환원시켜 준다.

대도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물들은 고립되어 있다. Razumov나 *The Secret Agent*의 모든 인물들은 마치 「자유의 길」의 Mathieu를 비롯한 다른 인물들처럼 고독하다. 섬 속에 갇힌 Heyst는 실존적 고독을 상징하며 감방에 갇힌 「이방인」의 Meursault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사람의 경우 육체적 고립이 그들로 하여금 인간사회에서부터 소외되게 하고 도덕적 고립을 불러들이고 있다.

정글이나 대도시에 못지 않게 바다와 배는 중요한 무대의 하나이다. 바다와 배는 뱃사람들에게는 삶의 근거지이자 마음의 고향이다. 온화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평화롭게 보이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는 고독하다. Conrad는 *The Nigger of the Narcissus*에 언급하여 이 소설의 관심은 단순한 항해기가 아니라 인간 고립에 대한 문제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 Narcissus* is not the problem of that has arisen on board a ship where the conditions of complete isolation from all land entanglements make it stand out with particular force and coloring.<sup>8)</sup>

이 소설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죽음과 타인의 죽음이라는 결정적 문제에 단독으로 맞서야 한다는 인간 고독에 대한 탐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항해는 사실상 "an

8) Gerald Jean-Aubry, ed. *Joseph Conrad: Life and Letters*, Vol. II (New York: Doubleday, Page & Co., 1927), p. 342.

adventure of the soul"<sup>9)</sup>인 셈이다.

Conrad는 인간이 몸담고 있는 이 세계가 반드시 적대적이지는 아닐지라도 인간의 욕구와 필요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연에서는 윤리적 기준을 찾을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 ethnical view of the universe involves us at last in so many cruel and absurd contradictions, where the last vestiges of faith, hope, charity, and even of reason seems ready to perish, that I have come to suspect that the aim of creation cannot be ethical at all.<sup>10)</sup>

바다는 무한한 생명력의 대상이기도 하나 인간의 운명에 대해 무관심하며 "no compassion, no faith, no law, no memory" (MS., p. 135)의 표상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unfathomable cruelty"를 (MS., p. 137) 발휘하며 파괴적이다. 동남아의 자연은 Nemesis가 숨어 기다리는 세계이며 아프리카의 자연은 정글이 암시하는 것처럼 암혹 그 자체이다.

자연의 비정함은 많은 인물들을 배반하고 있다. Follet의 말처럼 Jim은 자연과 인간이 합작한 무대에서 희롱당하는 희생자가 되고 있다.<sup>11)</sup> 예를 들어 그가 Patna 호에서 뛰어내렸을 때 그는 틀림없이 그 노후한 배가 침몰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배는 무사했으며 그로 인해 Jim의 행위는 비겁한 것으로 판명됐다. 그는 "It maddened me to see myself caught like this. I was angry, ... I was trapped!" (LJ., p. 102)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가 Patusan에서 Gentleman Brown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뱃길을 열어주었을 때 만약 그 악당이 Dain Warris가 진쳐있는 병영막사의 후방으로 통하는 비밀의 수로를 알지 못했더라면 기습공격을 하여 Warris를 살해하는 참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Jim은 절망하며 극도의 허무감을 느낀다. 말하자면 그는 부조리와 직면한 것이다.

Conrad의 인물들은 고립된 상황에서 흔히 인간 내면의 어둠, 비이성적 요소를 표출한다. 그것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인간 내면의 어둠인 것으로, 고독감이나 공포, 허영심이나 야심, 물질적 욕망, 지배욕, 환상이나 몽상과 같은 비이성적 요소이며, "dark power," "potential hell in the heart of every man"<sup>12)</sup> 등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황야라는 고립된 상황으로 인해 Kurtz는 상아에 미쳐버리고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변신했다. Kayerts는 지나친 고독감으로

9) Vernon Young, "Trial by Water", *The Art of Joseph Conrad: A Critical Symposium*, p. 109.

10) Joseph Conrad, *A Personal Record* (New York: Doubleday, Page & Co., 1925), p. 92. 이차 Conrad의 작품인용은 상기 출판사의 책을 사용하며 *A Personal Record*는 PR.로 *Tales of Unrest*는 TU.로 *The Nigger of the Narcissus*는 NN.으로 *Lord Jim*은 LJ.로 *The Secret Agent*는 SA.로 *Under Western Eyes*는 EWE.로 *Victory*는 V.로 *The Shadow Line*은 SL.로 *The Mirror of the Sea*는 MS.로 줄여서 페이지를 기입함. 단 "Heart of Darkness"와 "The Secret Sharer"는 *Heart of Darkness and The Secret Sharer* (New York: Bantam Books, 1981)를 사용하여 각각 HD.와 SS.로 줄임.

11) Wilson Follet, *Joseph Conrad: A Short Study* (New York: Doubleday, Page & Co., 1915), pp. 85-86.

12) Lillian Fedder, "Marlow's Descent into Hell", *The Art of Joseph Conrad: A Critical Symposium*, p. 169.

인해 동료인 Carrier를 살해했으며 또 자기자신은 자살을 했다. 이러한 인물들의 행동이 암시하는 비이성적인 요소로 인해 인간과 인간이 몸담고 있는 세계가 부조리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고립의 요인 중의 하나는 의사소통의 단절이다. 이 현상은 동료사이나 부녀사이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남녀사이의 관계는 Sartre나 Camus의 경우에 있어서처럼 원만하지 못하다. 남성들에게 여성은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 친근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남성들은 소외되고 고독하며 사랑도 아내도 가정도 가족도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는다. 남녀간의 성애에 대한 Conrad의 처방은 사람들 상호간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근접한 유대에 의해서도 그 틈새를 메꿀 수 없다는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사랑할 때일지라도 "I am independent — and therefore perdition is my lot" (UWE., p.362). 라고 할 만큼 고립과 독립성을 드러내고 있다.

남녀사이의 의사소통의 단절로 소외되는 인물을 다룬 작품으로 "Amy Foster"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Guerard가 "Conrad's bitterest and most generalized statement of this sense of isolation"<sup>13)</sup>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주인공의 고립은 통렬하며 비극적이다. 폭풍을 만나 난파하는 바람에 생명부지의 땅에 던져진 Yanko Goorall은 낯선 고장에서 외국인 아내를 만나 새 가정을 꾸미지만 끝끝내 적응하지 못한다. 그들은 생활경험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단절감에 빠지는 것이다. 두 사람 사이의 장벽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은 Yanko가 열에 들며 물을 청하는 대목이다. 아내 Amy는 무의식 중에 자기나라 말로 물을 찾는 남편의 고함소리가 무서워 도망쳐 버린다. 결국 Yanko는 대문앞 웅덩이에 머리를 박고 쓰러져 죽는데 Amy의 몰이해와 사랑의 결핍이 남편을 고독에서 구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결혼한 남녀 중에서는 Flora와 Anthony 선장이 유일하게 끝에가서 화합되는 것같이 보이나 그 행복도 몇년 안가서 남편의 죽음으로 끝난다. Adam Gillon도 지적하듯이<sup>14)</sup> 결혼이나 남녀관계가 고립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Nostromo*의 광산주인 Gould 부부는 점차 서로의 관계가 멀어진다. Verloc 부부는 처음부터 사랑같은 것은 없었고, "The Return"의 남편 Harvey는 아내가 가출한 이유도 또 돌아온 이유도 알지 못할 만큼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그는 마지막에 "there can be no life without faith and love-faith in a human heart, love of a human being! (TU., p.177)"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이와 비슷한 점은 *Victory*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Victory*는 사랑이 인간의 고독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Sartre의 사상이 중심에 깔린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작품이다. Sartre는 *Being and Nothingness*에서 자아, 즉 대자 (For-itself)는 사랑하는 상대를 자기의 세계에서 객체로서 자기와 결합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나 증오로 끝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사

13) Guerard, p. 49.

14) Adam Gillon, *The Eternal Solitary: A Study of Joseph Conrad* (New York: Bookman Associates, 1960), p. 102 참조.

랑하는 상대방도 대자로서 꼭 같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체와 객체의 상대적 관계는 상호 이동하는 불안정한 것이다. Sartre에 의하면 성적 욕망이란 단순히 상대방을 육체화함으로써 자기 주체의 객체로 만들기 위하여, 타인의 주체성을 포획하고자 하는 대자의 충동이다. 인간은 동시에 주체와 객체가 될 수는 없으며 서로가 자기의 주체를 지키고 타인의 주체를 뺏으려고 하는 갈등으로 인해 결국 원만한 사랑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sup>15)</sup>

Heyst와 Lena는 Sartre가 말하는 이 사랑의 어떤 양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Heyst는 분명히 Lena에게 매혹되어 있지만 단순히 자기 주체의 객체로서 그녀를 소유하기를 바랄 뿐이다. Lena는 진정한 사랑을 바라지만, 언제나 그녀를 객체로서만 보는 Heyst는 Lena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 반면에 Lena는 그러한 Heyst의 태도를 인지하고 그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한편에서는 아쉬워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Well, you were thinking of me, anyhow. I am glad of it. Do you know, it seems to me, somehow, that if you were to stop thinking of me I shouldn't be in the world at all! (V., p. 187)"

그러나 Heyst는 너무나 완벽하게 자기중심주의적인 주체성 속에 빠져있으므로 자기의 주변에 있는 선과 악의 분간도 하지 못한다. 다만 그는 Lena가 죽자 그 때 비로소 자기의 과오를 깨닫게 된다. Conrad에게 있어서 사랑한다는 것은 주체와 객체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Sartre처럼 비관적이며 사랑의 불협화음을 묘사하고 있다.

인간의 고립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실존적 개념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Conrad는 Sartre와 Camus 처럼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Nietzsche의 주장에 동의한다. 이 세계의 모든 가치척도의 기준이 되고 인간을 타락에서부터 구원하여 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스스로가 자신의 윤리기준을 만들어야만 한다. Conrad는 Marguerite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기는 자기자신을 믿는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I shall never need to be consoled for any act of my life, and this because I am strong enough to judge my conscience rather than be its slave, as the orthodox would like to persuade us to be.<sup>16)</sup>

Conrad는 기독교 신앙을 믿지 않는다. 그는 어린시절부터 기독교를 혐오해 왔다고 토로하고 있으며 "the inexplicable cruelty of the Invisible"<sup>17)</sup>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기독교가 가증스럽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5) Hazel Barnes, "Translator's Introduction", *Being and Nothingness: An Essay of Phenomenological Ontology*, by Jean-Paul Sartre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66), pp. xlix-li.

16) John A. Gee and Paul J. Strum, ed. *Letters of Joseph Conrad to Marguerite Poradowska 1890-1920* (New Haven: Yale Univ. Press, 1940), p. 36.

17) *Ibid.*, p. 31.

I am not blind to its services but the absurd oriental fable from which it starts irritates me. Great, improving, softening, compassionate it may be but it has lent itself with amazing facility to cruel distortion and it is the only religion which, with its impossible standards, has brought an infinity of anguish to innumerable souls — on this earth.<sup>18)</sup>

Conrad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견해를 따르고 있지만 그렇다고 기독교적 윤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절대권위는 부정하지만 Camus처럼 자기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믿으며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윤리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Conrad는 *The Narcissus*의 열렬한 개종자인 Pedmore의 반기독교적인 비정함을 비난한다. Pedmore는 「이방인」의 목사처럼 눈앞의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보다도 자기 삶의 사명에 더 관심이 있다. Pedmore는 Wait가 피병을 앓고 있을 뿐이라는 착각을 깨뜨려 버리며, 목사는 Meursault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그의 내면의 결백을 파괴한다. Conrad나 Camus에게 이것은 기독교도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치의 전도인 것이다.

물론 Conrad는 순수한 기독교적 윤리가 그렇게 용이하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Sartre나 Camus처럼 신의 죽음, 적어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절망하지 않으며, 자기 힘으로 독단적 교리가 없는 하나의 신념과 성실성이라는 이상과 책임을 창출한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한다.

Everyone must walk in the light of his own hearts gospel. No man's light is good to any of his fellows. That's my creed from beginning to end. ... Another man's truth is only a dismal lie to me.<sup>19)</sup>

이 개인주의와 개인의 양심을 받아들이는 데에서부터 인간사회의 의미가 나와야만 한다. Conrad의 휴머니즘은 실존주의자들에 못지 않으며, 신이 존재하지 않는 우주에서 오직 인간만이 가치에 대한 성실성과 인간유대에 대한 신뢰에 입각한 인간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Conrad는 여러 형태의 고립된 양상을 묘사함으로써 그의 문학의 현대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고립과 소외의 주제는 20세기 문학의 주제이기도 하다.

### Ⅲ. 자 유

Conrad소설의 주인공들은 스스로 자기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자유를 지닌 인물들이다. 그들은 자기 자기나름대로의 가치와 도덕적 기준을 창출하는 자유를 누린다. 그들은 말하자면 「세상에

18) Edward Garnett, ed. *Letters from Joseph Conrad 1895-1924* (Indianapolis: Bobbs-Merrill, 1928), p. 245.

19) Elizabeth Drew, *The Novel: A Modern Guide to Fifteen Masterpieces* (New York: Dell Publishing Co., 1963) p. 165에서 재인용.



내던져진 존재이며 자유를 누려야 할 선고를 받은 자들”<sup>20)</sup>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는 처음부터 자기규정적이지 아니며 그것이 우리의 현사실성(facticity)의 일부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유롭지 않을 수 있는 자유는 없다. 자유는 다음에서 Sartre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택의 자유를 의미한다.

Freedom is the freedom of choosing but not the freedom of not choosing. Not to choose is, in fact, to choose not to choose.<sup>21)</sup>

이 선택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야 하며, 선택의 자유라는 무거운 짐은 벗겨질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함으로써 실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Freedom is identical with my existence”<sup>22)</sup>라는 Sartre의 말이 시사해주는 것처럼 실존은 본질적으로 자유이며 실존의 영역은 자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유의 문제는 Conrad의 모든 작품에 나타나는 보편화된 주제일 뿐만 아니라 Macquarrie가 다음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실존주의의 핵심적 주제이기도 하다.

There can be few themes, if any, nearer to the heart of existentialism than freedom. The theme is present in all the existentialist writers.<sup>23)</sup>

Heidegger와 Sartre는 특히 이 자유의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 Sartre의 사상은 자유의 개념의 주변을 감돌고 있다고 하여도 좋을 만큼 그의 모든 작품이 이 문제를 다양하고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한 예로 그의 작품은 주인공들이 자유를 주장하거나 거부하는 것에 대한 연구라고도 할 수 있다. 「파리」의 Orestes는 자기 자신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유로운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I am my freedom”<sup>24)</sup>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는 자기에게는 행동을 규제할 권위나 규율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I am doomed to have no other law but mine .... For I, Jeus, am a man, and every man must find out his own way.<sup>25)</sup>

자유에 대한 Conrad의 신념은 그의 작품의 주인공들을 통해 여러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The Secret Agent*의 Winniew Verloe은 자기 남편으로 인해 동생인 Stevie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갑자기 해방감을 느끼며, 이제는 남편을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Conrad는 “She had her freedom .... She was a free woman” (SA., p.251)이라고 말하면서 이순간을 Winnie가 자유를 얻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녀는 남편을 살해하고 이번에는 “a perfect of

20) Sartre, *Being and Nothingness*, p. 623.

21) *Ibid.*, pp. 618-619.

22) *Ibid.*, p. 572.

23) John Macquarrie, *Existentialism*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3), p. 177.

24) Jean-Paul Sartre, *The Flies In "No Exit" and Three Other Plays* (New York: Vintage Books, 1955), p. 121.

25) *Ibid.*, pp. 121-122.

freedom" (SA., p.251)을 얻게 된다. 그러나 Winnie는 그 자유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른다. 그녀의 자유는 고독하며 「자유의 길」에서 Mathieu가 느끼는 자유에 비유될 수 있다.

He was alone, enveloped in a monstrous silence, free and alone, without assistance and without excuse, condemned to decide without support from any quarter, condemned forever to be free.<sup>26)</sup>

Winnie의 실존적 갈등은 비극적이다. 자유는 이처럼 저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자유는 진정한 삶의 길을 열어주기도 한다. *Under Western Eyes*의 Razumov는 마부인 Ziemianitch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기에 대한 혐의가 완전히 풀렸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Haldin을 밀고한 장본인임을 고백함으로써 자기기만에서 벗어나게 된다. Conrad는 Razumov의 입을 통해 그가 자유와 독립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I made myself free from falsehood, from remose——independent of every sigle human being on this eath. (UWE., p.368)

Conrad 소설의 주인공들은 모두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 자유는 선택을 의미하며 선택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선택은 양자택일의 가능성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Conrad의 인물들은 상호배타적인 양자증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결정적 궁지에 처하게 된다. Razumov는 Haldin을 배반하여 그를 관헌에 고발하느냐 또는 그의 피신을 도와주느냐의 두 갈래 길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는 다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The Rescue*의 Lingard 선장은 좌초한 배의 사람들을 구해야 하느냐 아니면 원주민 옛친구들을 구하러 가야 하느냐의 사이에서 택일해야 한다. "The Secret Sharer"의 선장은 처음에는 Leggatt를 보호해 주느냐 마느냐를, 다음에는 그를 무사히 보내주느냐 마느냐를 선택해야 한다. *The Shadow Line*의 선장은 절망해서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 쪽을 선택한다. Kurtz는 자기의 내면에 잠재한 어둠에 굴복하는 길을 택한다. Jim은 죽기 전날 밤 어떠한 행동을 선택해야 하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갈등 속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냈음이 분명하다.

이처럼 자유는 선택을 중용하고 선택은 강한 불안과 고통을 수반한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으며 인간의 삶은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Conrad의 작품에서는 선택의 순간이 흔히 긴박한 상황, 즉 사생결단의 순간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러한 점을 가리켜 Walter Allen은 "Conrad is the novelist of extreme situation"<sup>27)</sup>라고 말한다. Conrad의 인물들은 극한 상황에 직면할 때 때로는 높은 도덕성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 인간적인 약함과 비열함을 노출하게 된다. Conrad는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설정하여 주인공들의 갈등을 통해 자유의지의 구현 가능성을 시험하고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인간 실존의 실상을 보다 극명하게 보여

26) Jean-Paul Sartre, *The Age of Reason* (New York : Alfred A. Knopf, 1971), p.320.

27) Walter Allen, *The English Novel* (Harmondsworth : Penguin Books, 1976), p.303.

준다.

자유에 대한 Conrad의 견해를 Sartre가 말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견해가 19세기 결정론자들 보다는 실존주의자들의 그것에 가깝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만약 우주에 법도 없고 절대적 권위로서의 신도 없다면 인간은 운명을 믿는 일을 거부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물론 현실생활에서나 Conrad의 소설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Conrad는 개인의 운명은 우연보다도 개인의 개성에 의존한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고립된 상황에 있는 인물 앞에 침입자가 출현하는 경우에 잘 나타난다. *Victory*, *Lord Jim*, “The Secret Sharer”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의미에서는 “The Heart of Darkness”도 이러한 유형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경우에 침입자들이 어떤 장소에 출현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그 장소의 어떤 상황 또는 어떤 인물들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이지 단지 우연만으로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 Jones, Brown, Leggatt 등은 모두가 그들이 찾아간 곳에 있는 상대방 인물들의 인간적 도덕적 결함을 상징하고 있다. 그들의 역할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잘못을 통감하게 함으로서 앞으로 어떤 행동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이 선택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침입자는 결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주게 되는 현사실성을 상징한다. 예컨대 *Victory*의 Jones의 경우 그의 엄세주의와 여성혐오증은 Heyst로 하여금 그의 엄세주의와 Lena에 대한 이해부족, 즉 타인과 교재하면 자기자신의 본래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두려움에서 오는 이해부족과 대결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Brown은 Jim과 Brown에게 공통된 기정사실, 즉 현사실성에 의해 만들어진 상황에 놓인 Jim이 자기의 본분으로서 다루어야 할 죄를 상징한다. Conrad는 Jim의 경우에 다른 방식을 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탈출할 수도 있었다. 그는 죽을 필요는 없었다. 이점은 Heyst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살은 결코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Jim과 Heyst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The Secret Sharer”의 선장도 Leggatt라는 침입자가 출현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선택해야 한다. 이 작품에서는 위기가 주인공인 선장 자신에 의해서도 조성되고 있다. 즉 그의 자신감의 결여, 심약함과 불확실성 등이 마치 Jim의 죄가 Brown으로 하여금 Patusan으로 오게 만들고 Heyst의 엄세주의가 Jones를 Samburan 섬으로 불러들인 것처럼 Leggatt에 의해 상징되는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선장은 그 위기에 굴복하지 않았다. 자기의 결함을 극복하려는 그의 의지가 그 위기 상황을 정복하고 그는 올바른 삶을 선택할 수 있다. 그는 Jim이나 Heyst와는 달리 자기가 선택한 자유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세계에 하나의 의미, 즉 오직 자기자신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

“Heart of Darkness”의 Kurtz의 이야기도 자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 행사된다는 Sartre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Kurtz는 아프리카의 정글에 숨어있는 어떤 잔혹한 운명에 의해서 멸망한 것은 아니다. Conrad는 아프리카의 원주민들도 그들 나름대로 백인들 못지 않게 인간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No, they were not inhuman ... what thrilled you was just the thought of their humanity—  
—like yours—the thought of your remote kinship with this wild and passionate uproar.  
(HD., p. 59)

만약 그들에게 백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백인들 보다는 악에 덜 물들었다는 것이다. Kurtz를 마지막 공포 속으로 몰아 넣었던 것은 그들이 아니다. Marlow는 Kurtz의 고독한 상황이 자기의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어둠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It [wilderness] had whispered to him [Kurtz] things about himself which he did not know, things of which he had no conception till he took counsel with his great solitude—and the whisper had proved irresistibly fascinating. It echoed loudly within him because he was hollow at the core. (HD., p. 98)

이처럼 Kurtz는 어떠한 조건, 즉 그의 공허함 속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Conrad는 주장한다. 이 경우는 Kurtz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이 자기 탐욕을 충족시키는 일에 탐닉하는 길을 선택한 상황과 결부함으로써 자기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특수한 상황이다.

Jim의 경우에도 그의 죽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자유롭게 선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arlow는 Jim의 Patusan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In fact, Jim the leader was a captive in every sense. The land, the people, the friendship, the love, were like the jealous guardians of his body. Every day added a link to the fetters of that strange freedom (LJ., 262)

Jim은 Patusan 사회가 꼭 그를 필요로 하는 인물이며 그는 Patusan을 떠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Marlow는 Jim이 죽기 전날 밤 쓰려고 했던 편지에 언급하여 Jim의 선택이 숙명적이고 불가피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There's nothing more; he had seen a broad gulf that neither eye nor voice could span. I can understand this. He was overwhelmed by the inexplicable; he was overwhelmed by his own personality—the gift of that destiny which he had done his best to master.  
(LJ., p. 341)

Marlow는 또한 Jim의 죽음에 언급하여 낭만적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한편 "But it has happened—and there is no disputing its logic" (LJ., p. 343). 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Conrad는 Marlow의 시점을 통해 Jim의 죽음의 선택은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모든 힘의 절정, 즉 그의 과거의 행동, 그에게 내재하는 개성, 그리고 Patusan에서의 특수한 상황 등 모든 힘의 정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Jim은 일찌기 순전히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해 해난 재판에 출두한 일이 있다. 그 때와 꼭 같은 방식으로 Jim은 Doramin과 정면으로 대면한다.

만약 Jim의 죽음이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된 하나의 자살이라면 그의 죽음이 보상이나 아니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만약 그의 죽음이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과거에는 바라면서도 저항할 수 밖에 없었던 벌을 이제와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행동할 수 없었던 것을 이번에는 역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는 최상의 용감한 행동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과거의 학생같은 낭만적인 행동규범을 거부하고 그 대신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자기자신을 파멸시키는 비행동을 선택한다. 그의 죽음의 선택은 그가 "shadowy ideal of conduct" (LJ., p. 416)에 충실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서구적, 기독교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도덕적 딜레마의 해결책으로서 그의 행동은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Krieger가 다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적인 행동거부 역시 행동의 형식이며 다른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Thus closes another door on the existential trap, confirming the claims of Axel Heyst, ... that all action—Jim's as well as Kurtz's—is the devil's work but adding what Heyst's career, in flying from action, attests: that inaction is as deadly as the rest and with fewer satisfactions. It opens no door out of the dilemma but only one that leads in again to the tragic.<sup>28)</sup>

결정적 비행동은 철저하게 참여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 Jim은 「유폐의 방」의 Garcin처럼 자기가 비겁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확신시키기를 원한다. 그는 마지막 단 한번의 영웅주의에 의해 예전에 그가 비겁했던 것을 보상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죽음의 선택이 성공적 결말을 맺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Heidegger나 Sartre에게 있어서 자유는 실존주의에서 찾게되는 궁극적 가치의 근원이다. 가치는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만 생성되며 자기 정당화라는 가치만이 자유로운 결정 그 자체의 가치이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Conrad의 인물들은 자기자신의 삶의 가치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있다. 그들은 Heyst처럼 기만성과 자유의 거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나, 자기의 자유를 인식하고 또 자유를 인식하는 가운데 행동하는 성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 IV. 책 입

Conrad 소설의 인물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 것은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이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으며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주어진 자유에 큰 불안, 즉 "dizziness of freedom"이<sup>29)</sup> 수반되는 것도 자신의 선택으로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데서 오는 강한 책임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뚜렷한 가치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도덕적 결단

28) Murray Krieger, *The Tragic Vision: Vision of Extremity in Modern Literature* Vol. I (Baltimore, Maryland: Johns Hopkins Univ. Press, 1973), p. 179.

29) Sören Kierkegaard, *The Concept of Dread*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57), p. 55.

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마련이다. 그러나 자기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인다면 자기의 삶에 형식과 의미를 부여할 기준이 될 자기자신의 가치체계를 창조해야만 한다. 첫째로 받아들여야 할 가치는 자기자신에 대한 자기의 책임이며 다음으로는 타인에 대한 자유를 존중해야 할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Sartre도 “when we say that man is responsible for himself, we do not mean that he is responsible only for his own individuality, but that he is responsible for all man”<sup>30)</sup>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책임이 강조된다. 책임은 Conrad소설의 주인공들이 진정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이다.

Conrad에게 있어서 자유는 책임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와 책임의 문제와 연관하여 그의 작품에 나타난 관심은 먼저 자기동일성의 탐구이며 다음은 자기자신과 보다 큰 공동체에 대한 자기책임을 자유롭게 승인하는 데에서만 나올 수 있는 참여행위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의 작품에서는 개인적 이익과 공적 이익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흔히 보게 되는데 이때 개인은 어느 쪽 책임이 보다 큰 책임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결정해야만 한다.

Conrad는 아무리 인물이 고립되어 있는 것같이 보일지라도 그 인물이 자기자신의 동일성을 탐구하는 것을 해설하기 위해 또 그 인물과 그가 소속한 사회와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역설하기 위해 분신적 존재를 설정한다. “The Secret Sharer”의 Leggatt은 젊은 선장의 분신임이 분명하다. 선장과 Leggatt은 둘 다 고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며 또 세상에 의해 시험을 받고 있다. 그들은 자기 고뇌를 덜기 위해 누구인가와 의사소통을 해야만 하는 꼭 같은 긴박감을 느낀다. 그런데 선장의 심약함에서 비롯된 불안은 Leggatt와의 대면을 통해 점차 자신감으로 바뀌어져 간다. 선장은 Stallman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Leggatt을 통해 자아를 추구하는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다.

Leggatt, this other self, becomes the psychological embodiment of the ideal of selfhood which the captain must measure up to. He provides him the utmost test.<sup>31)</sup>

이 시험에 대한 해답은 선장이 배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풀리게 된다. 즉 선장의 의무수행에 방해가 되는 Leggatt의 존재는 배에서 사라져야만 하는 것이다. 선장은 되도록 배를 육지에 근접시키므로써 엄중한 능력 테스트를 받는다. Leggatt은 배를 떠남으로서 선장의 분신역할도 끝내고 다시 평범한 개인으로 돌아간다. 이렇게해서 선장이 자기와의 동일성의 표시로 Leggatt에게 주었던 모자만이 물위에 떠서 배의 진로를 안내해 준다. 선장은 Leggatt을 떠나 보낼 것을 결심하므로써 자기자신에 대한 책임을 승인하였고 동시에 모자를 Leggatt에게 줌으로서 동료선원들에 대한 책임을 승인하였으며 마침내는 배를 지휘함으로써 보다 큰 공동

30) Jean-Paul Sartre, *Existentialism and Humanism* (London: Methuen & Co., 1984), p.29.

31) R. W. Stallman, “Conrad and ‘The Secret Sharer’”, *The Art of Joseph Conrad: A Critical Symposium*, p.281.

체에 대한 책임을 떠맡을 자세를 갖춘다. 그는 Leggatt와의 대면을 용기있게 처리함으로써 책임 있는 선장이 된 것이다.

*The Shadow Line*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된다. 젊은 선장은 오랜 무풍상태가 계속되자 배를 운항할 책임을 질 수 없게된다. 그는 희망을 잃고 무기력 속에 빠져 심지어 무풍상태가 죽은 전임선장의 저주 때문이라고 하는 항해사의 미신 같은 말을 믿을 지경에까지 이른다. 폭풍이 금방 몰아 닥칠 것 같은 긴박한 순간을 맞고서도 갑판으로 올라가 돛을 낮게 조절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돛은 이내 바람에 찢겨버린 것이고 열병에 걸린 허약한 선원들이 다시 새 돛으로 갈아달 기력이 있을 리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의 자신감의 결여는 배에 키니네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더욱 더 증폭된다. 그는 선장으로서 재난에 대비하지 못한 자기실수에 대한 죄책감을 절감한다. 처음 배를 지휘하게 된 데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 컸던 탓으로 자기의 책임에는 소홀함이 있었다. 그도 "The Secret Sharer"의 선장처럼 자기자신에 대한 확신감이 없다. 폭풍이 다가오자 그는 "I always suspected that I might be no good. And here is proof positive, I am shirking it, I am no good" (SL., p.107).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불현듯 결단을 내려야 할 실존적 순간에 마주치자 그는 마치 「이성의 시대」의 Mathieu가 지하실에 숨느니 보다는 싸울 것을 결심한 것처럼 주저함도 편견도 다 떨쳐버리고 결연히 갑판으로 뛰어나간다. 그는 병든 선원들에 대한 동정심에 눈이 뜨고 허약한 선원 Ransome의 헌신적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으면서 배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인식하게 된다.

*Lord Jim* 역시 자기동일성과 책임이라는 한쌍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시점의 다양화가 모색되고 있으며 여러 쌍의 분신적 상호관계가 설정되고 있다. 먼저 Jim과 Marlow의 관계에서 Marlow는 Jim을 "one of us"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Jim에게 있어서 Marlow는 "... an invisible personality, an antagonistic and inseperable partner of his existence—another possessor of his soul(LJ., p. 93)"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다. Marlow는 Jim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Jim을 통하여 자기자신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Jim은 Patna호를 버리고 달아남으로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였다. 그러나 Marlow는 Patna호 사건을 아주 미미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사실은 그가 Jim과 자기자신과의 사이를 해설하는 단서가 된다. 예컨대 Patna호가 폭풍속에서 침몰촉발의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Marlow도 Jim과 똑같은 행동을 취했을 것이라고 하는 Jim의 말을 듣고 Marlow는 그에 대한 공감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Jim의 'secret sharer'로서 자기자신의 갈등을 인식하고 그것을 청자와 독자에게 신중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다음에서 Guerard가 말하고 있는 Conrad 자신의 분신적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The Conradian double occasionally serves only to clarify a hero's plight. But more often he exists both as an actual fleshly human being to be saved or betrayed, and as a shadowy projection of hidden self, also to be saved or betrayed.<sup>32)</sup>

32) Guerard, p. 59.

Marlow는 Jim과의 친분을 인식하지만, 그 친근성이 Kurtz와 함께 한 경험에는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그 만큼 Jim을 깊이 통찰하고 철저히 간파하고 있지는 못한다.

Jim은 공통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시인함으로써 Gentleman Brown과 동일시되고 있다. 이것은 Brown이 Jim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그들이 꼭 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암시를 하고 있는 대목에서 나타난다.

And there ran through Browns rough talk a vein of subtle reference to their common blood, an assumption of common experience; a sickening suggestion of common guilt, of secret knowledge that was like a bond of their minds and of their hearts. (L.J., p.387)

Jim이 Brown에게 퇴로를 열어줄 때 그의 잠재의식 속에는 자기자신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는 소망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자신의 이상적 이미지가 다시 파괴된 것을 인식할 때 그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자살하는 길 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은 자살이 책임회피라는 보다 큰 잘못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Jim은 자기자신에 대한 책임과 타인들에 대한 책임과의 사이에서의 실존적 선택에 직면한다. 그는 자기가 죽음으로서 Brown의 간계가 파괴한 자기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자기중심주의는 이 자살이 자기를 사랑하는 Jewel과 자기가 지켜줘야 할 원주민들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다는 사실을 외면하게 한다. 그는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자기자신의 자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자기의 자유의 한계가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타인들의 자유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보다 큰 책임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책임을 의식하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에게 성실하지 못한 인물이 된다.

“Heart of Darkness”에서도 Marlow는 Kurtz의 *alter ego*이며 사실상 Kurtz의 탐구를 통해 자아를 탐구하고 있다. Marlow는 아프리카에서 그가 실존적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 인간 누구나가 자기자신의 내면에서 부딪쳐야 하는 어둠을 발견한다. 그가 Kurtz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것도 Kurtz 역시 다른 백인들과는 달리 이 세계의 두 종류의 도덕성, 즉 공적 책임에 대한 도리와 자아에 대한 도덕성을 구별하는 자기인식을 탐구하고 발견했기 때문이다.

Marlow는 Kurtz의 삶과 죽음을 통해 도덕적 책임의 승리를 발견하고 자기자신과 동일시한다. Kurtz의 마지막 외침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공허함, 즉 아무도 면제받을 수 없는 도덕적 타락성이 있다는 가공할 사실을 증명한다. 그것은 또한 Kurtz가 감히 면밀하게 탐색한 자기의 어두운 자아와 대면하는 그의 개인적인 역량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Kurtz는 자기기만 속에 빠진 백인 순례자들의 타락성을 제압한 승리를 거두고 있을 뿐 아니라 Jim에게서 형상화된 인간의 위선적 경향, 즉 자기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을 외면하려고 하는 태도를 제압한 승리를 거두고 있다. Marlow는 Kurtz를 통해 자기자신의 자아의 실존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규명하는 시련을 겪을 수 있다.

Kurtz와 Marlow는 아프리카의 한복판으로 여행하여 문명을 떠난 원시세계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를 누린다. Kurtz는 상아라는 물질에 매혹되어 원주민들을 학대하며 악마적인 신이 되는 길을 선택한다. Marlow는 Kurtz가 비인간화될 만큼 타락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가 혐오스럽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Marlow는 Kurtz의 마지막 외침 "the horror! the horror!" (HD., p.118)를 듣고 비로서 인간의 의미를 해명할 수 있다. 그 외침은 자기자신과의 싸움을 끝까지 수행한 자가 내뱉은 최후의 도덕적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Marlow는 자신도 죽음의 문턱을 헤매었으며 한 인간의 내면 깊은 곳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내면의 잠재성을 통찰한다. Marlow의 뇌리에는 Kurtz가 죽은 후에도 그의 최후의 절규가 오래도록 새겨져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the echo of his [Kurtz's] magnificent eloquence thrown to me from a soul as translucently pure as a cliff of crystal" (HD., p.120)이었으며 환상의 세계에서 감졌던 그의 눈을 뜨게하고 인간의 실존적 고뇌를 깨우쳐 준 것이기 때문이다.

Kurtz는 매우 행동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universal genius" (HD., p.45)이며 "remarkable man" (HD., p.105)이다. 그러나 그에게 한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제력(restraint)의 결여이다. 아프리카의 황무지에서 Kurtz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There was nothing either above or below him .... He had kicked himself loose of the earth. (HD., p.112)

선택한 행위에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면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Kurtz는 자기중심주의적인 내면의 충동에만 귀를 기울이고 단순히 공허한 자아로 남아 있을 뿐이며, 보다 큰 책임을 묵살하고 현재의 자아를 위해 "free play"를 한다. 그의 비인간적인 마력은 원주민 사이에서 신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의 행위는 도덕성의 파괴이며 다음의 Bohlmann의 말처럼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Kurtz's behaviour may point to the desirability of moral absolutes, but it even more clearly demonstrates that none exist. Whatever emotional longings Conrad might have had for religious sanctions, his fiction denies the presence of any guiding moral force from beyond man.<sup>33)</sup>

인간에게 아무리 전적인 자유가 주어지고 인간이 전적으로 자유에 참여한다하더라도 자유의 무거운 짐을 발견하지 못하면 무용한 일이다. Marlow는 순례자들이 저지른 공적인 기만과 도처의 인간들이 저지르는 사적인 기만행위를 발견함으로써 자신이 살아갈 규준을 찾아낸다. 그는 인간은 개인적인 죄에 대한 자기자신의 책임을 거부할 수 없을 뿐더러 공적인 죄에 대한 자기의 공적인 책임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는 잠시 백인들의 악에 등을 돌리고 오직 자기자신의 직무에만 충실하였으나 그것도 공적 수준에서 보면 미흡한 것이다. 그는 마지막에 아프리카를 떠남으로써 또 Kurtz의 사문서를 회사의 간부에게 넘겨주지 않으므로써 자기의 공적인

33) Bohlmann, p.106.

책임을 승인한다. 그는 또한 아이러니컬하게도 Kurtz의 약혼녀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서 자기의 개인적인 책임을 완수한다. 그로서는 모든 진실을 그녀에게 밝힌다는 것이 너무나도 잔인한, 그야말로 “too dark—too dark all together”(HD., p.131)한 처사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Marlow는 비록 거짓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타인에 대한 자기의 책임이 자기자신에 대한 자기의 책임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는 아프리카 여행의 체험을 통해 타인의 필요를 위해 자기의 감정을 희생할 만큼 성숙해진다. Marlow는 Kurtz나 Jim과는 달리 책임있는 행동을 통해 자기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한 인물이다.

책임을 죄의 문제와 결부된다. Conrad의 작품에서는 인물들의 행위가 죄나 무죄냐의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Lord Jim*에서 Marlow는 Jim이 죄책감을 갖지 않은 것에 대해 의구심을 지니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He made so much of his disgrace while it is the guilt alone that matters. He was not . . . clear to me. . . there is a suspicion he was not clear to himself either”. (LJ., p.177)

Jim은 「전략」의 Clamence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Patna호에서 뛰어내렸던 일에 대한 자기의 죄를 시인하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책임이 따르는 삶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다. Marlow는 그러한 Jim의 성향에 언급하여 “The real significance of crime is in its being a breach of faith with the community of mankind”(LJ., p.157).라고 말하고 있다. Jim은 Clamence 못지 않게 두번 잘못을 한다. 처음에는 책임을 회피했고 두번째로 결과적으로 수반되는 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작품에서는 죄와 불명예감 사이의 판별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기가 행한 행위의 잘못은 시인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사는 인물에 대한 양면 가치의 문제가 남겨져 있다.

Conrad는 죄에 대한 애매성을 다른 작품에서도 다루고 있다. Karain은 충동적인 죄를 저지르고 오래동안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지낸다는 점에서 Jim을 예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Lingard는 극한 상황에서 죄를 범했다. 그는 위급한 상태에서 배를 구출해내기는 했으나 동시에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유죄나 무죄냐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하면서 법을 멸시하고 있다.

... you don't see me coming back to explain such things to an old fellow in a wig and twelve respectable tradesmen, do you? What can they know whether I am guilty on no—  
—or of what I am guilty, either? That's my affair (SS., p.180)

선장은 법을 만든 공동체에 대해 충실할 것인가 그 법을 깨뜨리고 죄를 범한 형제 범법자에 대해 충실할 것인가 사이에서 갈등한다. 여기에서 선장은 Meursault가 행한 것과 꼭 같은 결정, 즉 법정 이 반드시 유죄와 무죄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정을 한다. Leggatt의 죄는 배라는 공동생명체를 구했다. 그러나 Meursault를 이해해 주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도 그 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 아닌가? 정황이 참작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Conrad와 실존주

의자들이 제공하는 공통의 문제이다. 그들은 모두가 극한 상황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충실하며, Marlow처럼 “though the world may want facts, facts can't explain anything”. (L.J., p.29). 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Conrad와 실존주의자들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한다. 즉 인간은 결국 자기자신일 뿐이며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닌데 인간이 자기자신에 대해 죄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그들에게는 실존주의적 방식에서 동일한 해답이 주어질 것이다. 즉 인간은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기자신을 바꾸는 일을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상호간의 주체성을 침식하는 한 모든 인간은 죄가 있지만, 타인에 대한 책임을 자유롭게 받아들임으로서 스스로를 보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onrad의 진가는 Sartre처럼 인간의 문제를 도덕성의 문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자유에 대한 경험, 선택하고 가치를 창조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일에 대한 필요성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이며 따라서 책임을 진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 존엄성은 인간이 존재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행동한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Conrad는 자유와 책임에 대해 실존주의자들과 동일한 신념을 지닌다. 그가宿命론과 비판적인 인생관을 가지면서도 삶의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도덕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하여 책임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V. 반 항

Conrad 소설의 주인공들은 자의식이 강하고 다분히 독단적 성격의 인물들이다. 그들은 각기 자기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삶의 길을 출발한다. 그러나 냉엄한 현실 세계의 부조리와 직면할 때 소외와 절망, 환멸과 공포, 좌절과 고뇌 등 온갖 인간의 곤경을 경험한다.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불운과 비극적 종말을 맞고 있으나, 자아 실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그들은 세계의 부조리에 대항하여 반항하는 인물들이다.

반항은 어떤 낭만적 또는 영웅주의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의 평범한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일상의 인습에 젖은 인간들이 안일함 속에서 살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 실존의 문제와 직접 부딪히는 진지한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Sartre는 반항에 대한 Camus의 견해에 언급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For Camus, man's response to the absurdity of his condition does not lie in a great romantic rebellion, but in daily effort. Our true revolt lies in seeing things clearly, keeping our word and doing our job. For there is no reason for me to be faithful, sincere, and courageous. And that is precisely why I must show myself to be such.<sup>34</sup>

34) Jean-Paul Sartre, "Departure and Return," *Literary and Philosophical Essays* (New York: Collier Books, 1962), pp.177-78.

Conrad는 Camus처럼 부조리한 세계에서 충실하고 진지하고 용감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충실, 진지, 용감 등의 개념은 인간이 실존하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창조해야 하는 가치라는 점에서 Camus의 견해에 동의한다. Conrad는 부조리에 대항하는 반항에 대해 실존주의자들과 같은 신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Camus와 Sartre는 개인적 반항 뿐만 아니라 공적 정치적 반항에도 관심이 있었으나, Conrad의 관심은 인간이 살아갈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개인적 반항에 있다. 이들 세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불가능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욕망이나 인간의 환상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데 있는 것이다. 반항을 거부한다는 것은 자기기만 속에 빠져드는 것이다. 반항은 인간유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 우주에서 인간의 공격, 즉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시도를 제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동료인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진정한 반항은 자기의 책임을 인식하고 타인을 하나의 사물로 취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다. 인간은 자기자신을 희생할 수는 있어도 타인을 희생할 수는 없다.

Camus의 반항은 그것이 유행병과 싸우기 위한 것이건 독재적 통치자와 싸우기 위한 것이건 언제나 인간성이라는 명분이 깃들여져 있다. 그는 언제나 인간사회를 위해 인간유대의 필요를 인식하고 있었다. 한 예로 Dr. Rieux는 부조리의 상징인 페스트에 대항해서 헌신적으로 싸운다. 병은 죽음이라는 중극성, 삶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는 병에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 싸우지 않는다면 병은 모든 인간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는 병과 싸워 이기는 일이 일시적인 승리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자기운명과 영웅적으로 대결한다. 이 작품에서는 Grand, Tarrou, Rambert, Othon 판사까지도 모두가 합심하여 병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으며 각자가 자기자신이 하는 일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에 대한 개인적 책임과 희생에 바탕을 둔 인간유대감을 인식한다. 인간이 타인에 대해 공동의 친근감을 지니게 되는 것은 그들이 공동의 적, 즉 삶에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부정과 재앙만을 제공하는 세계의 부조리에 맞서 함께 싸우고 있다는 인식때문이다.

Conrad는 인간이 살아갈 기준이 될 가치에 대해 실존주의자들 보다도 더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그러한 그의 신념으로서 성실성(fidelity)이라는 덕목을 피력하고 있다.

Those who read me know my conviction that the world, the temporal world, rest on a few simple ideas: so simple that they must be as old as the hills. It rests notably, among others, on the idea of Fidelity. (PR., p. xxi)

성실성은 용기, 의무, 인내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필연적으로 인간유대에 연결되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Ford M. Ford는 "fidelity to an idea or service"<sup>35)</sup>를 Conrad의 핵심적인 덕목으로 보았고, E. Crankshaw는 "Much of Conrad's writing may be seen as a fantasia on

35) Ford M. Ford, *Joseph Conrad: A Personal Remembrance* (London: Duckworth Press, 1924), p. 66.

fidelity" 라고<sup>36)</sup> 보고 있다. 이 성실성이란 인간의 도덕적 자아에 대한 성실성이며, 개인적 행위나 공동생활에도 다같이 관련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자기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책임있는 인물들의 정신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던 "The Secret Sharer"의 선장이나 *The Shadow Line*의 선장을 비롯하여 Allistoun 선장, MacWhirr 선장들은 비록 세상사에 대해 심오한 통찰력은 없을지라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성실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진정한 반항을 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Conrad는 영국상선단에 의해 상징되는 하나의 가치기준, 즉 공격 도덕성에 대한 충실성을 찬양한다. 그것은 개인의 자아를 초월한 것으로, 단순한 동료의식과 명예로운 호혜주의 봉사를 포함한 인간의 개인적 도덕성과 일치하는 공격적인 행동규준을 의미한다. "Typhoon"의 MacWhirr 선장은 그러한 행동규준에 대한 성실성의 진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배가 위기를 맞자 질서와 의무의 명분아래 즉각적으로 대항하여, 폭풍과 중국인 노동자들의 싸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다시 질서를 회복한다. 그러나 그의 성실함은 단순히 질서와 의무라는 특수한 개념에 대한 성실성의 범위안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류에 대한 성실성이며 암흑의 우주의 한복판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그는 마지막에 유일하게 가능한 공정한 방식으로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은전을 나누어줌으로서 동정심과 관용의 미덕을 베풀고 있다. Conrad는 그가 폭풍에서 살아남았으나 결국은 어떠한 형식의 죽음에 굴복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무정부적인 우주의 한복판에서 질서와 안전의 오아시스를 창조한 선장의 미덕을 찬양한다.

성실성이란 "Heart of Darkness"에서 Marlow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페스트」에서 Dr. Rieux는 병과 싸우는 것은 영웅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된 마음가짐의 문제, 즉 그로서는 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가치의 여러 단계에서 자기의 의무감을 무엇보다도 앞세우는 충실성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

Nostromo는 자기를 신임해서 은괴운반을 맡겼던 사람들에게 대한 자기의 성실성이 배반당한 것을 느낄 때 도둑으로 변신하고 자기가 훗날 은의 충실한 노예가 된다. 그는 자기가 은괴를 구해 내었던 말았던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을 들을 때 무위하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자기 자신이 허무해진다. 그의 커다란 자기중심주의는 그와 같은 충격에 견딜 수 없다. Nostromo는 자기가 배반당한 것을 의식했을 때 자기 자신과 사회에 대한 반항으로 물질인 은에 집착하게 된 것이다. Marlow는 아프리카에서 용인된 규준에 대한 성실성이 도덕적인 악에 대한 인간의 안목을 얼마나 어둡게 할 수 있는가를 인식한다. Kurtz는 유럽의 문명사회에 대한 반항으로 아프리카의 원시적 본능에 성실성을 다 바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성실성과 더불어 Conrad가 중요시하는 또 하나의 가치는 인간유대(human solidarity)이다. 이 개념은 필연적으로 성실성에 연결되는 것으로서 Conrad뿐만 아니라 Camus나 Sartre 같은 실존주의자들이 필수적인 가치로서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다. Jaspers가 실존함이란 단순히 있음이

36) Edward Crankshaw, *Joseph Conrad: Some Aspects of the Art of the Novel* (London: Macmillan Press, 1976), p. 19.

아니라 「거기에 있음(dasein)」이라고 말한 것은 실존이 세계나 다른 의식존재들과 일정한 관계 속에 있음을 의미하는데 Conrad의 인간유대도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개인을 의식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인간이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타인으로부터 소외될 때 이른바 문제인간이 된다. Conrad의 주인공들은 대부분이 타인과의 유대가 단절된 상태에서 살고 있으나, 인간이란 언제까지나 고립된 상태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onrad는 *The Narcissus*의 서문에서 작가의 기능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인간유대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He [The Artist] speaks ... to the latent feeling of fellowship with all creation—and to the subtle but invincible conviction of solidarity that knits together the loneliness of innumerable hearts, to the solidarity in dreams, in joy, in sorrow, in aspiration, in illusions, in hope, in fear, which binds men to each other, which binds together all humanity—the dead to the living and the living to the unborn. (NN., pp.viii)

Conrad는 그의 해양소설에서 인간의 집단을 좁은 공간에 압축시켜 하나의 소우주를 형성함으로써 인간유대의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The Narcissus*에서 James Wait와 Donkin은 망망대해에 고립된 상황에 놓인 선상에서 인간유대의 근원이 되는 복종, 의무, 충성, 명예 등의 덕목을 거부한다. 선원들은 Donkin에게 입을 옷을 준다든가 Wait가 병든 것에 대해 동정심을 나타냄으로서 일종의 가식된 우호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우호관계가 거짓임은 폭풍 속에서 이루어진 진실한 유대관계가 하마터면 파괴될 뻔했던 반란이 일어나려고 했을 때 확실히 밝혀진다. 먼저 있었던 유대관계는 이기적 사고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선원들은 Donkin으로 하여금 그들의 권리가 배에 대한 의무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선동하도록 놔두고 있다. Donkin은 Wait가 피병을 가장하여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선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기적 욕망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그들의 생명이다 같이 한데 묶여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고, 자기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가 다 같이 결속해야만 한다는 유대의식을 갖게 된다. Narcissus호의 선원들은 자기들을 파멸시키려는 폭풍에 맞서 모두가 단결하여 싸움으로써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그들은 말하자면 폭풍이라는 부조리에 과감하게 반항한 인물들이다.

Conrad는 인간사회에서 이탈하는 인간들에게도 관심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례는 그의 주인공들이 부조리와 대결하여 자기파멸을 선택하는 경우에 볼 수 있다. Decoud의 염세주의는 자살로 이끈다. Jim과 Heyst도 역시 자살의 길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부조리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살은 살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바, "The Idiot"의 Susan은 남편인 Pierre을 살해했으며 "An Outcast of Progress"의 Kayert는 동료인 Carlier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다. Winnie는 남편인 Verloc을 살해하고 결국 자기자신도 투신자살한다. 이들 모두가 스스로 인간사회에서의 유대관계에서 벗어나고 있는 인물들이며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의 반항을 하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Heyst의 경우 인간유대를 배반하고 동료인간과의 신의를 파기하는 자는 언제나 벌을 받으며,

그 보상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하나의 중심주제를 상징한다. 그는 마지막에 자기자신을 동료인간들로 부터 분리시킨 잘못, 즉 그것으로 인해서 Lena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자기자신의 과오를 인식한다. 만약 그에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아이러니컬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삶과 죽음은 인간유대의 배반이 불가피하게 벌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오히려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Lena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 그녀와 더불어 죽음을 선택하는 Heyst의 모습은 반항적이다.

Jim의 종말은 Heyst 보다도 훨씬 가벼운 보상이다. 왜냐하면 그는 두번 인간사회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에 Patna호 사건에서 자신에 내재하는 어둠과 대면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 도피행각을 계속하는 반항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마침내 그는 Patusan에 정착하여 안정을 찾는 듯 했으나 Brown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다시한번 자신의 내면의 어둠과의 대면을 강요받는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수 없어 Doramin에게 스스로 죽음을 자청하는 반항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Jim도 Heyst처럼 보상의 대가로써 죽음이 있을 뿐이다.

자살과 살인은 어떤 면에서 하나의 반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극도의 부조리를 느낄 때 도덕적 사회적 가치에 대해 반항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기자신에 대해 반항한다. R. J. Das는 Conrad 작품에 나타난 이러한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In moments of solitude and despair, some of Conrad's characters choose self-destruction, while at the same time, they seem to discover some positive value or meaning in terms of self-fulfillment. With his treatment of solitude, guilt, hallucination and violence in its extreme forms of murder and suicide Conrad seems to be discovering an atheistic existentialist in himself.<sup>37)</sup>

Das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끝까지 행사하여 이룩한 자아실현(self-fulfillment)의 관점에서 어떤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 그러나 자살이나 살인이 도덕적으로 자기자신이나 인간사회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이행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반항에 의해 부조리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Razumov의 경우에도 부조리에 반항하고 있으나 그는 자기의 원죄에 보상할 수 있으며 다시 인간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에게는 두번 큰 선택의 고비가 있다. 첫번째는 요인을 암살한 학우 Haldin의 피신을 도와야 하느냐 또는 자기 일신의 안전을 취해야 하는나의 문제를 놓고 어느 한 쪽을 택해야 한다. 그는 갈등 끝에 Haldin을 배신하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일단 위기를 모면하지만 계속 고통과 죄의식의 시련을 겪는다. Haldin이 처형된 후 그는 경찰의 밀정이 되어 정치망명객들의 틈에 끼어 Haldin의 동지였던 것처럼 가장해야 하는 끔찍한 고통을 당한다. 그를 더욱 숨막히게 하는 것은 Haldin의 누이동생인 Natalia를 사랑하게 된 것이

37) R. T. Das, *Joseph Conrad: A Study in Existential Vision* (Atlantic Highlands, N. J. : Humanities Press, 1980), p. 121.

다. 그는 Haldin이 아닌 또 하나의 환영에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그는 마침내 죄의식과 불안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할 수 없게 되자 과감히 자기 기만을 버리고 자기의 배신행위를 고백할 결심을 한다. 그는 비록 귀머거리가 되는 형벌을 받지만 그 보다 더 소중한 보상을 받는다. 그것은 고결한 삶이다. 비록 Natalia와 맺어질 수는 없게 되었지만 진실한 의미의 유대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사회에 복귀한 것이다. 그는 Jim처럼 동료들 배반함으로써 좌절했으나 그와는 달리 자기의 죄를 승인하고 자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내려지는 합당한 벌을 받았다. 그는 자살이라는 쉬운 방법을 거부한다. 그는 자기자신과 동료인간들에게 정직해야 한다는 실존적 요청을 실현한 것이다. Razumov의 반항은 자기자신에 대한 책임은 물론 타인에 대한 책임을 인식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간적 공감을 환기시킴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긍정하고 있다. 혁명가의 세계도 그에게 자비심을 베풀고 있으며 그 집단의 일원인 Tekla가 그를 헌신적으로 간호를 한다. Natalia까지도 그의 고매함을 인식한다. Sophia Antonovna는 가장 안전하고 희망적인 순간에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린 Razumov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It was just when he believed himself safe and more—ininitely more—when the possibility of being loved by that admirable girl first dawned upon him, that he discovered that his bitterest railings, the worst wickedness, the devil work of his hate and pride, could never cover up the ignominy of the existence before him. There's character in such a discovery. (UWE., p.380)

Conrad는 실존주의자들처럼 부조리한 세계에 맞서 반항하는 인물들을 묘사하고 있다. 반항은 낭만적, 혁명적 행위가 아니며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 용감하게 도전하는 일이다. 진정한 삶을 위해서는 자기의 자유와 책임을 인식하고 하루 하루를 성실하고 정열적으로 살아나가야 한다. Conrad의 주인공들은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환멸을 느끼며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와 성실성을 지니고 부조리에 도전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음으로서 진정한 삶을 위한 자아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 IV. 결 론

이 논문에서 Conrad소설에 나타난 실존주의적 양상을 통해 작가가 탐구하는 실존적 인간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Conrad의 주인공들은 모두가 고립된 상황에 놓여있다. 그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 우주, 즉 목적도 의미도 없는 부조리한 세계에 유기된 존재들이다. 자연은 인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비우호적이다. 인간은 서로가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남녀간의 사랑도 고독을 달래주는 위안의 근원은 될 수가 없다. Conrad의 인물들은 스스로가 자아를 형성하는 대자적 존재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이며 자유를 누려야 할 선고를 받은 자들로서, 도덕적 고립의 상태에서 홀로 선택을 해야하는 불안을 느낀다.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으며 인간의 내면에는 악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내면의 악은 냉혹한 현실의 부



조리와 맞설 때 쉽사리 밖으로 노출될 수 있다. 그러한 현상은 그의 작품속에서 흔히 배신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자아의 허상이 표출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Conrad의 소설에서는 소외, 불안, 고통, 자유 등 실존주의적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실존주의가 인간조건의 부조리를 파헤치고 있는 것은 전후의 폐허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다시 구축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성을 상실하고 비인간화되어가는 20세기의 위기에서 먼저 인간 자신들의 문제에 주목해야만 한다는 인식하에 자신들을 속속들이 파헤쳐야만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실존주의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시도로써 철저한 부정을 통해 긍정으로의 방향을 제시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절망과 혼돈의 세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그 절망과 고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부조리한 인간조건에 대항할 뿐만 아니라 결연한 용기를 가지고 잃어버린 인간가치를 회복하려는 것들이 곧 실존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실존주의가 강한 부정을 통해 긍정적 의미를 제시하려고 했다면 Conrad문학 역시 이러한 경향을 지닌다고 하겠다. Conrad는 인간의 비이성적인 면을 묘사했으나, 그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Conrad의 인물들은 부조리한 현실과 대면하여 고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될지라고 용기와 극기심을 발휘하여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성실성을 보임으로서 도덕적인 승리를 이끌어 낸다. 이것이 진정한 삶을 추구하는 주인공들의 참다운 모습이다. 이러한 점에서 Conrad의 도덕성은 그의 작품의 실존주의적 경향을 통해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Conrad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은 그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실설정의 선구적 안목때문이다. Conrad는 일찍부터 인간의 실존적 가치와 의미를 찾고자 노력했으며 그러한 그의 작가적 노력이 전후의 실존주의의 특징과 부합됨으로써 동시대의 어느 작가보다도 미래를 예견한 작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당대의 작가들 보다도 오히려 Kafka, Sartre, Camus, Faulkner 등의 실존주의적 작가들에 가까운 것도 그의 작품이 지닌 현대성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이상과 같이 필자는 Conrad문학의 현대적 특징으로 나타난 실존주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논의의 결과가 Conrad는 곧 실존주의 작가라는 단정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실존의 문제를 깊이 파헤친 작가이기는 하나 인간의 경험을 합리화하거나 규범화하려는 유형의 사상가나 철학가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오히려 바다, 정글, 아프리카, 동남아 등 다양한 상징적 배경을 통해 인간이 부딪힐 수 있는 부조리의 측면을 파헤쳐 부조리한 인간조건을 밝혀내고 있을 뿐이다. 그가 실존주의 작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철학가나 작가보다도 인간 실존의 문제를 성실하게 다룬 작가임은 분명하며, 그의 문학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도 바로 이러한 데에 연유하는 것이라고 본다.

Summary

## Existential Vision in Joseph Conrad's Novels

*Soo-jong Kim*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problems of human dilemma in the aspect of existentialism in Joseph Conrad's novels, especially in terms of such existential aspects as isolation, freedom, responsibility, and revolt.

According to existentialism, man is alone in a universe in which nature is indifferent, love between man and woman is not a source of comfort, and God is dead or at least missing. Man is a "being-for-itself," who makes his own life authentic in the face of this absurd world. In the world of meaninglessness and absurdity, man is completely free to choose his own values and ways of life. But freedom of choice leads to anxiety because man does not know what the future will bring and the potential evil innate in human nature is always waiting to be revealed at any time. Man nonetheless has a positive outlook on life which can be called Authenticity.

Conrad shares with such existentialists as Sartre and Camus the ideas that man is responsible for his own life, that he can choose to live authentically, and that he can find his ultimate salvation in acknowledging and fulfilling his responsibilities to his fellow men. Most of Conrad's main characters are depicted as isolated or alienated. In the extreme state of isolation or defeat, however, Conrad's protagonists seek an affirmation of human fidelity and human solidarity, which Conrad sees as the most important values for human beings. In other words, Conrad's existential protagonist seeks authentic selfhood despite his own anxiety and the absurdity of the world.

Thus, even though he was not an existential thinker or writer, Conrad developed in his novels the themes of existentialism, which has been called the representative philosophical thought of the 20th century. In that sense, Conrad is one of the creators of the twentieth-century novel as well as one of the precursors of modern existentialism.